

한국 전통건축의 생태미학과 그 현대적 변용

이중우(계명대학교)

生態美學(Ecological-Aesthetics) 이란?

생물학적인 행태학(行態學)과 철학범주의 미학(美學)을 합성한 어휘로서 한 생명체(生命體)가 그 주변의 환경 즉, 다양한 유기체와 무기체와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통하여 진화되고 창조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현상이나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 생태학적 적용은 건축물을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 이해한다 그 핵심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생기론(生氣論)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기(氣)로써 상호연관시켜 해석한다. 여기서 氣의 본질적 해석은 바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풍수지리설은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비로소 법술 또는 학술로서 체계를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하루에 태양이 뜨면 낮이 되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며 양(陽)과 음(陰)이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태양의 빛에 따라 언덕에 생긴 응달과 양달이 서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음(陰)이 생길 때 동시에 양(陽)이 존재하게 되는 특성을 음양(陰陽)의 상대성(相對性) 또는 양면성(兩面性)이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응달과 양달의 나누어 짐과 관계없이 음양(陰陽)이 실현되는 장(場)인 언덕은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空間개념은 주체적(主體的) 의식(意識)과 형상적(形相的) 공간(空間)의 총상적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인간생활의 행태(行態)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요소의 의미가 형성되어 건축공간을 구성하고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변용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은 욕구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욕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외적 환경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활이란 인간과 환경의 총상적(總相的)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이 바로 인간의 행태(行態)인 것이다. 즉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그 주체는 의식이 되며, 의식의 표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타나고, 그 표징물은 인위적인 사상(事像)들이다. 이러한 객관화된 대상이 바로 환경인 것이다.

여기서는 집(家)의 의미를 한국적으로는 원효(元曉)의 체(體).용(用).상(相)의 세계관과 서양에서는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강(強).용(用).미(美)의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wonhyo (silla)		Vitruvius (Rome)	
Chen-Yong- Sang (體) (用) (相)	(體)Noumenon-	Kang-Yong- Mi (強) (用) (美)	(強)Firmness-
	Human(인간)		Construction(구조)
	(用)Interrelation-		(用)Commodity-
	Behavior(행태)		Function(기능)
	(相)Phenomenon-		(美)Delight-
Space(공간)	Esthetic(조형)		

Ecological-Aesthetic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cculturation

Lhee, Joong woo(Keimyung University)

What is Ecological-Aesthetics?

It is a compound word of biological Haengtae-hak (行態學) and philosophical aesthetics. It refers to a study which pursues beautiful phenomena or transcendent values in the process of evolution and creation of a life through interaction with and inter-dependence on surroundings, that is, a variety of organisms and inorganisms.

I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ecological approach considers a building to be a living organism. At the core of this idea lays *Saenggi-ron* (生氣論), a theory which interprets nature and human nature interrelating to *gi* (氣; material force).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of *gi* (氣) is based on the theory of *eumyang* (陰陽; yin and yang) and *ohaeng* (五行; five elements). Chinese geomantic theory is systematized in an academic and scientific way according to the theory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eumyang-ohaeng-seol*) and has persisted until now.

When the Sun rises a day begins, and after sunset comes a night, and that is where *eum* and *yang* cross. Likewise, according to the amount of sunlight, a hill is divided into a shaded area and a sunny area. Because of their interrelationship *eum* appears simultaneously with *yang*. Meanwhile, it is clear that there is one place, a hill, which demonstrates *eum* and *yang* regardless of the division between shadow and sunshine.

The traditional notion of a space relates to a form of human life which resulted from whole-interactiveness of subjective consciousness and morphological space. According to this notion, life elements have coined meanings, consisting of archeological spaces, and then changed forms of human life according to time.

In human life, it is desire that causes actions and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m. A human action, however, is not only decided by desires, but also needs to have external environmental conditions to be actualized. For an example, a living being is a form of action combined with whole-interactive work between humans and their environment, that is, for a man to make a living, the subject is consciousness, and the expression of consciousness is

shown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Lastly, symbols of these expressions are artificial thoughts. Therefore, objectified objects are so-called ‘environments’. For an instance, meanings of ‘house’ can be explained by Wonhyo’s worldviews; *chen*, *yong* and *sang*, in Korea, and by Vitruvius’s worldviews; *kang*, *yong* and *mi* in the West.

Wonhyo (Silla)	Vitruvius (Rome)
<p>Chen-Yong- Sang (體) (用) (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體) Noumenon-Human (用) Interrelation-Behavior (相) Phenomenon-Space 	<p>Kang-Yong- Mi (強) (用) (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強) Firmness- Construction (用) Commodity- Function (美) Delight-Esthetic

韓國傳統建築의 生態美學과 그 現代的 變容

Ecological-Aesthetic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cculturation

李 重 雨(명예교수)

Lhee, Joong woo

1. 生態美學의 사전적 意味

1.1. 生態學(Ecology)

생태학(生態學, Ecology)이란? 생물(生物)과 환경(環境)과의 관계 및 함께사는 생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정의한다. 또한 파스칼의 주장은 “전체 없는 부분을 인식 한다는 것, 또는 부분을 알지 못하고 전체를 아는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개념이 중요시 된다. 이는 환경구성요소를 전체 맥락에서 분리하여 연구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가 지닌 유기적 관련성의 체계 속에서 연구 되어져야 한다.

1.2. 美學(Aesthetics)

미학(美學)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에 담긴 아름다운 현상이나 가치와 체험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즉, 가치로서의 美. 현상으로서의 美. 美의 체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여러학문의 상위에 위치하는 美, 그 자체의 학문을 제창한 플라톤을 대표로하는 서양 전통적 美學은 초월적 가치로서의 美를 고찰한다.

1.3. 生態美學(Ecological-Aesthetics)

생물학적의 행태학(行態學)과 철학범주의 미학(美學)을 합성한 어휘로서 한 생명체(生命體)가 그 주변의 환경 즉, 다양한 유기체와 무기체와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통하여 진화되고 창조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현상이나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2. 傳統建築과 生態學의 관계

2.1. 건축의 生態學的 유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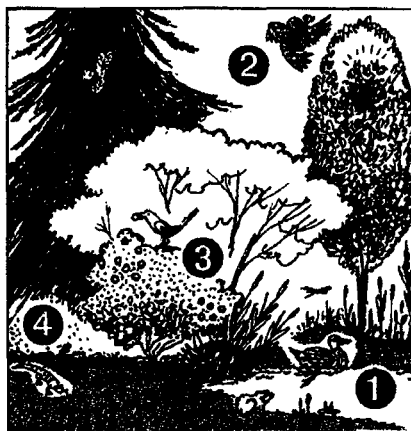
자연은 건축의 근원적 척도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어 왔으며, 또한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유기체(有機體)의 생물학적(生物學的)특성 즉 전체성, 통일성, 상관성, 통합성에서 유추를 통해서 해결하였다. 건축창조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유추방법이 있으나 특히 생태학적 유추방법이 전통건축에서 가장 통용하고 있다. 생태학적 유추에서는 형태와 양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적 조건에 관계된다.

환경이 변화된다면 형태와 양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현대에와서 생물학적 유추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형식적으로 도입된 과학이 Bionics이다. <그림1>참조 <정의용>

Bionics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공시스템의 설계 아이디어나 개념제공
- ② 당면한 문제해결 할수있는 방법연구
- ③ 인공시스템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생물학적 성능개선
- ④ 디자인을 위한 원형으로 사용되어진 생물학적 시스템 이해

<그림1> 건축의 생물학적 유추



- ① Surface water
- ② a variety of tree canopy heights
- ③ fruit-bearing "native" plant species; and
- ④ natural leaf much.

2.2. 傳統建築의 生態學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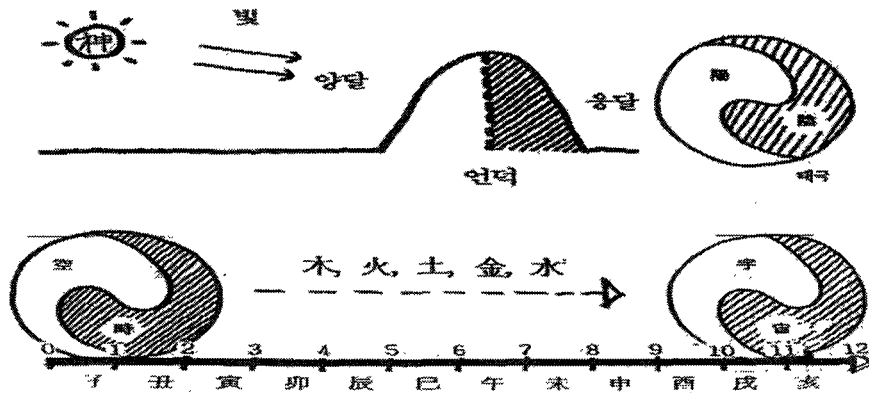
2.2.1. 立地의 風水的 개념

전통건축에서 생태학적 적용은 건축물을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 이해한다 그 핵심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생기론(生氣論)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기(氣)로써 상호연관시켜 해석한다. 여기서 氣의 본질적 해석은 바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풍수지리설은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비로소 법술 또는 학술로서 체계를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하루에 태양이 뜨면 낮이 되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되며 양(陽)과 음(陰)이 교차하게 된다. 이처럼 태양의 빛에 따라 언덕에 생긴 응달과 양달이 서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러한 음(陰)이 생길 때 동시에 양(陽)이 존재하게 되는 특성을 음양(陰陽)의 상대성(相對性) 또는 양면성(兩面性)이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응달과 양달의 나누어 짐과 관계없이 음양(陰陽)이 실현되는 장(場)인 언덕은 하나인 것이다.

무극(無極)한 혼돈(Chaos)이 천지(天地)를 나뉘고 형상을 드러내면 곧 질서가 생긴다. 우주(宇宙, Cosmos)는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자체가 우주의 질서이며 오행(五行) 즉 水木火金土이다. 이것이 자연을 보는 동양의 관점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주의 질서는 절대자인 신(神)이 주관한다고 보는 것이 서양의 관점이다. <그림2>참조

<그림2> 음양오행개념도



2.2.2. 空間의 傳統的 개념

인류역사가 진행되면서 문화권별로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하여 끝없이 사유하여 왔다.

인간(人間)이 무엇인가? 라는 정의와 해석은 인간(人間)과 자연(自然)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사고가 형성되어 그 사고를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인생만물(人生萬物)의 의미는 인간이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가지게 되며 인간의 인식속에서 우주와 만물이 생겨난다.

중방(中方)과 서방(西方)의 문화권에서는 인간(人間)은 어느 절대자에 의하여 창조되어 자연환경에 따라 적응되어 왔다고 믿고 있으며 동방 문화권(東方文化圈)에서는 스스로 조화(造化)되어 작용(作用)에 따라 윤회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소도경전본훈에는 “태초에 본래 무일물(無一物)로 형(形)과 질(質)이 없고 서방상하(四方上下)가 없어 허(虛)하고 공(空)하나 스스로 자재한 기운이 일어나 빛이 되어 그 빛이 상계에서 물러나자, 그 기운이 삼기(三氣)로 갈라져 천(天)·지(地)·인(人)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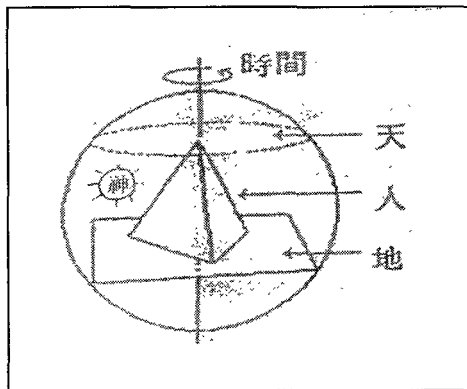
하늘(天)은 스스로 圓(○)이되고 땅(地)은 스스로 方(□)이되고 인간(人)은 스스로 角(△)이 되었다고 한다.”

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초에 신(神)이 하늘(天)과 땅(地)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암흑이 깊음에 신(神)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이 낮과 밤이 되었다. 물과 바다에는 동식물을 생육케하고 마지막으로 인간(天)을 창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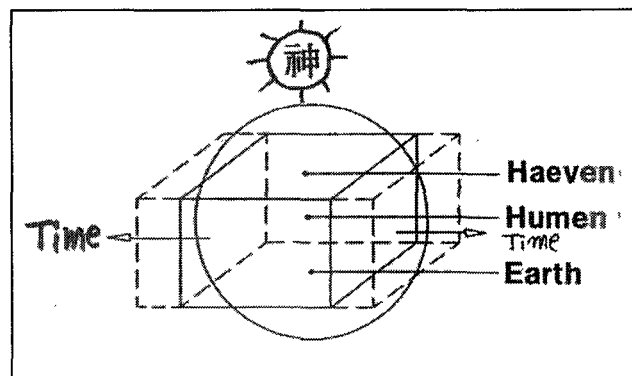
“神은 처음과 나중이요 사람에게 네모 반듯하고 장(張)과 광(廣)그리고 고(高)가 같은 새 城을 주었다”고 한다.

<그림3> 동서양의 공간 개념

동양의 공간 개념



서양의 공간 개념



3. 傳統建築의 生態美學的 해석

3.1. 땅의 形局과 穴

풍수(風水)란 동양(東洋)에서 일찍이 만물은 기(氣)로 이루어 졌으며 만물 중의 하나인 땅도 지기(地氣)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연(自然)속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터득한 지혜에 근본을 둔 경험과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을 시작한 이후부터 작물의 성장과 재배에 관계되는 기후, 물 그리고 땅의 성격과 분포의 차이를 기(氣)의 차이로 이해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

풍수지리(風水地理)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땅에 인간이 어떻게 조화(調和)하며 살아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풍수에서 지세는 산과 물이라고 하는 음양의 균형과 조화에서吉한 생기(生氣)를 찾게 되고, 반대로 산세와 물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생기를 수습하지 못하는 사기(死氣)가 된다. 이처럼 인간이 외부에 있는 기의 흡수와 유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며, 이 외기가 물의 수기(水氣)와 산의 화기(火氣)의 충화(沖和)작용의 결과로 생명체의 성쇠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역(易)이나 풍수(風水)의 이론적 핵심이다. <그림4> 참조

3.1.1. 간룡법(看龍法)

풍수는 땅의 생기(生氣)에 관한 지리학(地理學)으로서 이 생기(生氣)가 흐르는 맥(脈)이 산이며 산을 풍수용어로 룡(龍)이라 부른다. 그 룡맥(龍脈)의 흐름의 좋고 나쁨을 조산(祖山)으로부터 혈장(穴場)까지 살피는 일을 간룡법이라 한다. 용속에는 감추어진 산의 정기(精氣), 즉 지기(地氣)가 류행(流行)하는 맥이 있어 간룡에서는 용(龍)을 체(體)로, 맥(脈)을 용(用)으로 하여 그것을 찾는다.

백두대간 白頭大幹-낙동정맥-와룡산-대궁봉

3.1.2. 장풍법(藏風法)

장풍이란 명당 주위의 산세에 관한 술법으로서 바람이 흩어지지 않도록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생기를 멈추게 하고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아야 하며 바람을 막으려면 병풍이 필요하다. 장풍법은 바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가는 바람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방풍(防風)이라 하지 않고 장풍(藏風)이라 한다.

사신사 四神砂(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3.1.3. 정혈법(定穴法)

정혈(定穴)이란 수 백리 수 십리를 행룡해온 주룡(主龍)에 생기가 모이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이 합국(合局)하는 곳이며 정혈법은 주룡(主龍)과 주변의 산세와 수세를 면밀히 살피고 따져 정확한 혈처(穴處)를 정하는 방법이다. 정혈처(定穴處)란 음택의 경우는 체백(體魄)을 안치할 광중(壙中)이 되고, 양택은 주택, 또는 주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된다.

명당 明堂(생기生氣가 머무는 장소)

3.1.4. 득수법(得水法)

득수는 음양의 화합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무릇 이기가 융결해야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산수를 음양이라 일컫는다. 산수가 상보(相補)해야 음양이 화(和)하고, 화해야 충기(沖氣)된다. 득수법은 물이 충분한 생기를 전달할수 있는 형국을 살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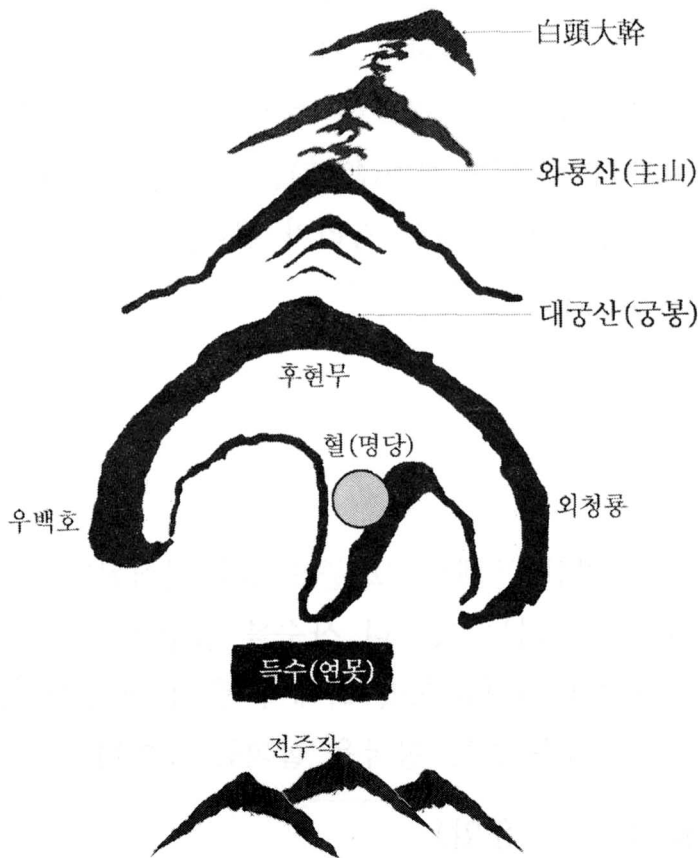
배산임수 背山臨水(명당수 유입)

3.1.5. 좌향론(坐向論)

좌향은 혈(穴)에서의 위치에서 본 방위(方位) 즉 혈(穴)의 뒤쪽 등진 방위를 좌(坐)로, 그리고 혈(穴)의 정면을 향(向)으로 한다. 따라서 북쪽에 안산을 바라보는 혈처(穴處)의 좌향은 자(북)좌오(남)향이라 부르는 것이다. 땅의 길흉판단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좌향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다.

자좌오향 子坐午向(정북正北-정남正南)

<그림4> 음양오행개념도



한학촌의 風水原理

[간룡법]
백두대간-와룡산(主山)-대궁산(궁봉)의 龍脈을 통한 穴의 精氣 흐름.

[장풍법]
좌청룡, 우백호, 전주작, 후현무의 지세로 바람이 모이게 함.

[정혈법]
백두대간과 와룡산의 主龍과 산세로써 陰陽五行이 合局하는 穴處.

[득수법]
명당수를 유입하여 연못을 조성하여 산수가 相補하고 음양이 和하게 함.

[좌향론]
후현무(來龍-坐)를 등지고 전주작(向)을 바라보는 背山臨水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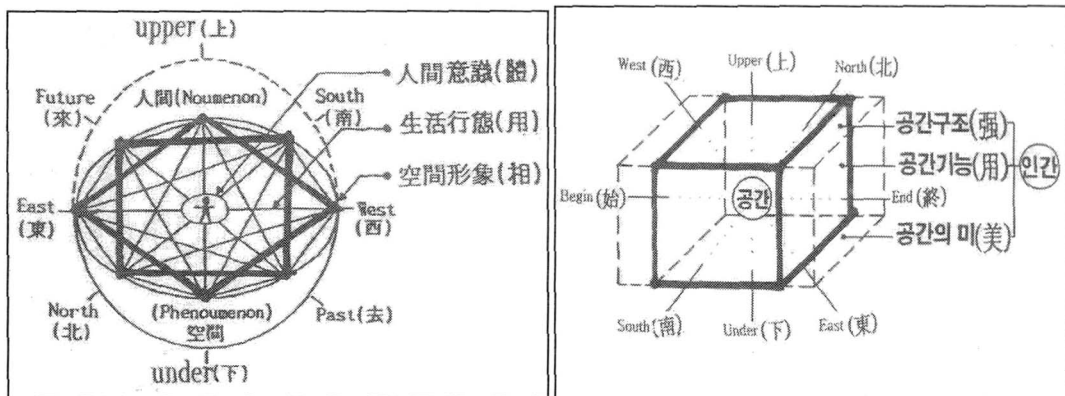
3.2. 建築空間의 構成原理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은 욕구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욕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외적 환경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활이란 인간과 환경의 총상적(總相的)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합이 바로 인간의 행태(行態)인 것이다. 즉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그 주체는 의식이 되며, 의식의 표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타나고, 그 표징물은 인위적인 사상(事像)들이다. 이러한 객관화된 대상이 바로 환경인 것이다.

그리고 주체적(主體的) 의식(意識)과 형상적(形相的) 공간(空間)의 총상적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인간생활의 행태(行態)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요소의 의미가 형성되어 건축공간을 구성하고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변용시켜 온 것이다.

여기서는 집(家)의 의미를 한국적으로는 원효(元曉)의 체(體)·용(用)·상(相)의 세계관과 서양에서는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강(強)·용(用)·미(美)의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5> 참조

<그림5> 동서양의 공간 구성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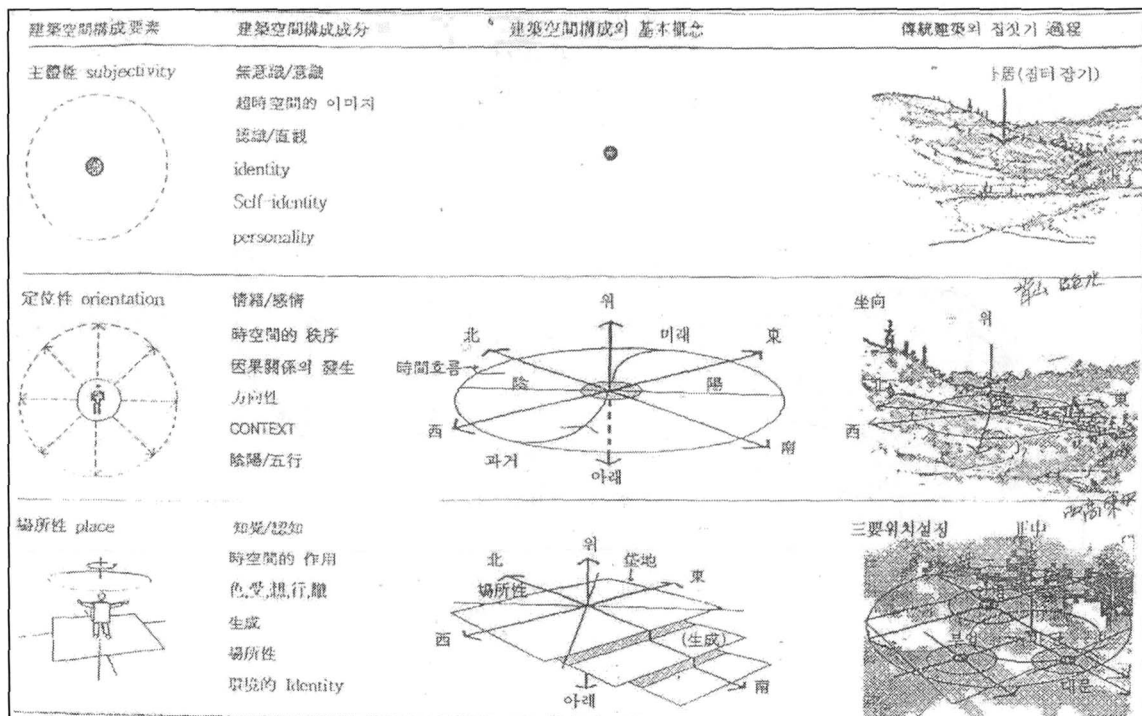


3.1.2. 체(體) - 主體的 人間의 意識

원효(元曉)는 “체(體)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서 ‘체(體)에서 일체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도 없다면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오직 형상(形相)이 없으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비가시적(非可視的)인 것이다.” 주체적(主體的) 존재인 인간은 본질을 중심으로 정주성(定住性)이 나타나며, 건축공간의 기본구조가 형성된다. 시공간(時空間)을 통한 총상작용(總相作用)이 이루어지면서 표현적 의식에 의한 인간의 정주(政住)가 시작된다.

여기서 정주는 인간의 의식과 장소(場所)의 개념적 결합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공간의 지각과 인식이 가능한 정신적 차원을 포함하는 한편, 장소는 자신의 내외적(內外的) 의식과 함께 실체의 시공간적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이 정주는 표현적 의식의 차원에서 공간적 장소의 차원으로 그 의미를 내포한다. <그림6> 참조

<그림6> 主體的 意識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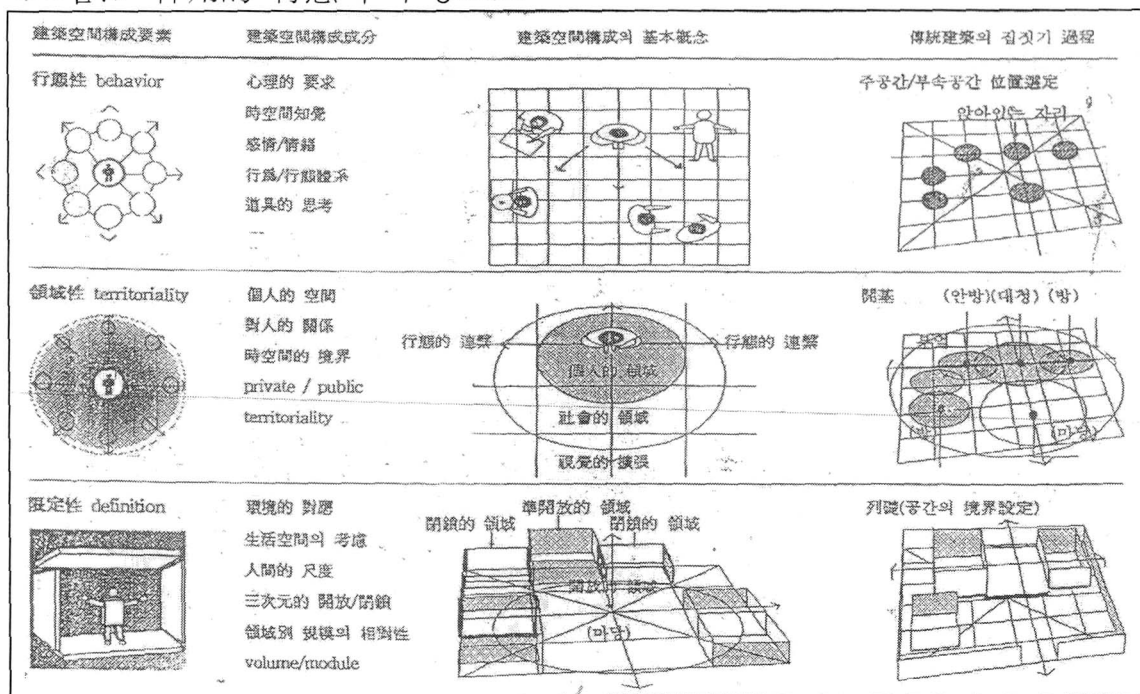
3.2.2. 용(用) - 作用的 生活的 行態

‘용(用)’이란 근본적으로 ‘체(體)’의 움직임이며, 작용(作用)이다. 그것은 외계(外界)의 사상(事像)을 매개로 한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 느객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마음의 본체(本體)에서 나온다. 공간의 정주성을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인식되는 건축공간의 주체적 본성(本性)이라할 때, 영역이 한정화(限定化)되는 과정은 인간의 작용적 행태(作用的 行態)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인간의 활동을 의미한다.

영역의 한정화현상은 전술한 인간의 작용적 행태의 성격과 관련하여 생성되지만 공간 또는 환경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인간은 전체 환경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개체적 성분이라기 보다는 환경의 주체적 존재로서 중심적인 개념이며, 환경에 대하여 상대적(相對的)이라기 보다 총체적으로 환경적 현상 그 자체의 다원적 모습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주체와 함께 생성되어 객관화된 사상(事象)으로서의 환경을 이해하고, 주체적 의식과 형상적(形象的)인 환경간에 생명력이 작용되는 인간행태의 작용을 통하여 상호의존적인 총상관계(總相關係)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림7> 참조

<그림7> 作用的 行態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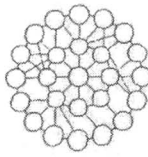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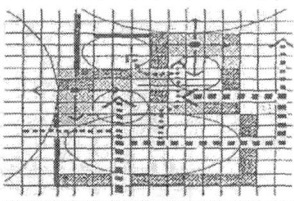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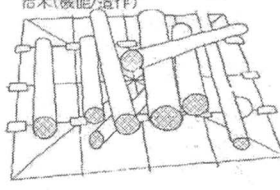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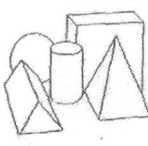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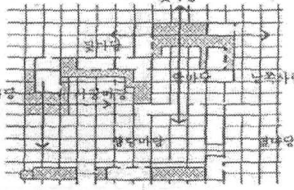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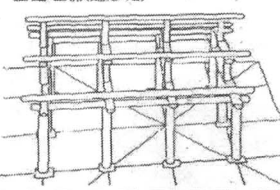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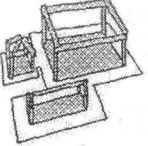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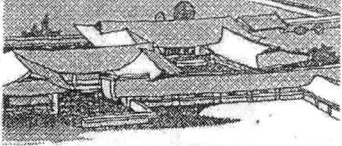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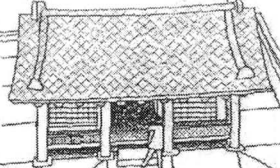


3.2.3. 상(相) - 形相의 空間의 造型

‘상(相)’은 본질적인 ‘체(體)’의 양상 또는 속성을 말한다. 현상적 조건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예측하며, 설명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결과적인 모습이 바로 ‘상(相)’인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관념이나 형태(形態)등을 가지고 그 양상(樣相), 그 속성(屬性) 등을 그려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체(體)·용(用)·상(相)의 삼대(三大)가 어떤 사상(事象)에 의해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일체삼면(一體三面)으로 본다.

건축적 의미에서 공간은 공간경계의 한정화에 따라 형상적 명료화가 이루어진 것이며, 형상(形相)은 항상 변화, 생성하는 인간의 의식(意識)과 행태(行態)가 현상적 수준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간의 의식(體)과 행태(用)의 관계는 동체이면(同體裏面)의 관계로서 형상(相)과 함께 총상작용(總相作用)을 함으로써 건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형상화는 건축공간 구성의 구체적인 과정이며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형태 구성과 공간조직화의 의미를 포함한다. 전술한 환경의 형상화단계는 언어에 있어서 어휘의 의미단계라 할 때, 공간의 조형화(造型化)는 언어를 구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림8> 참조

<그림8> 形相의 空間의 구성요소

建築空間構成要素	建築空間構成成分	建築空間構成的 基本概念	傳統建築의 짓기 過程
體系性 system 	生活內容의 秩序 環境의 要素/條件 物理的 特性 用途/操作의 意味 要素 elements/體系 system 內容과 形式의 關係		治木(機能/造作) 
造形性 modelling 	空間 構造 空間 形象/dimension 構造와 空間 形態知覺/gestalt mass 環境的 脈絡	윗마당 밑마당 안마당 뜰마당 누마당 별마당 	立柱/上樑(造形化) 
形相性 configuration 	歷史/文化的 意味 象徵性/類型學 構造와 形態 材料와 形態 形相構成 原理 建築空間의 體驗/評價	이상 외인 변남덕(평면자료:강영환, 집의사회사,1992.88면) 	家屋 

4. 傳統建築의 空間的 變容

- 살아숨쉬는 공간(空間)

전통건축에서는 공간이 살아숨쉬는 有機體로서 이해하며 나아가 세상만물은 氣의 운동으로 해석한다.

- 자연(自然) 순응적(順應的) 공간(空間)

인공환경인 건축도 자연환경과의 상호보완 또는 상호작용 하면서 자연에 순응과 조화로 형성된다.

- 4차원적(次元的)인 공간(空間)

동양에서는 일찍이 수천년전부터 우주(宇宙)의 의미는 서방상하(四方上下)와 왕고금래(往古今來)의 4차원으로 이해한다

- 전일적(全一的)인 무경계(無境界)의 공간(空間)

본체(本體-Noumenon)와 현상(現象-Phenomenon)의 관계를 일원성(一元性) 또 전일성(全一性)의 불이(不二)관계로 본다.

- 음양조화(陰陽調和)의 공간(空間)

전통건축에서는 대륙성기후인 겨울과 여름을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온돌구조와 마루구조의 조화로 이루고 있다.